



9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p>01. 기자 최은희의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운동 여학생 시위 주도 도쿄 유학과 조선일보 입사 기자 최은희 	<p>03.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날 제정 여성입각운동
학습목표	<p>02. 최은희의 여성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우회 창립 결혼과 퇴사 여권실천자운동클럽과 서울보건부인회 	<p>04.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운동 사건 사료 현상 모집
학습내용		

9주차 |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9주차 | 학습목표 2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학습목차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우회 창립을 주도했던 최은희의 여성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해방 후 최은희의 여권실천 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우회 창립 ■ 결혼과 퇴사 ■ 여권실천자운동클럽과 서울보건부인회



근우회 창립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최은희, 유영준, 황신덕

- 1926년 12월
 - 최은희, 유영준, 황신덕
 - 여성운동단체 조직 계획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당시 상황

- 설사 남자들이 함께 일반적으로 민족의 문화 계몽운동과 계급 해방운동에 참가하면서
라도, 부인들끼리만 단결하여 부인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고, 따로 이 자체를 발전시킬
기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끼는 여성들이 차차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가 선각 여성들 간에 가끔 대두되어 오다가 전국의 지식층 여성을 총망라하여 부인
계몽운동을 목표로 하는 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의논이 익어가면서도 그 시절 여성들의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당시 상황

- “한국의 민족운동은 신간회를 계기로 하여 분산적인 데서 통일로 들어간 것이요, 따라서
문호를 개방하여 남녀의 차별이나 계급의 차별이 없고 일체의 파벌을 초월하였건만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수천년 동안 인습에 젖은 관념으로 인하여, 소위 선구여성으로
손꼽히는 여성들도 선뜻 거기 입회하여 남녀가 같이 활동하기를 꺼리는 편도 있었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당시 상황

-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단체를 유지할 만한 성산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 필자는 직업상의 혜택으로나, 활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드디어 비밀이 예비 공작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

우리는 그날부터 용기 백출하여 흑한을 무릅쓰고 동분서주, 개별 방문으로 발기인 될
사람을 얻는 데 성공했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당시 상황

- 그 시대 친일파가 아닌 인텔리 여성에는 대개 호구 조사부에 요시찰인이라는 빨간 줄을 그어 놓고 담당 형사가 수시로 뒤를 밟아 일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나같은 삼일운동 전과자에게는 날카로운 눈초리를 던졌지만, 다행히 신문기자라는 신분 보장이 있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의심을 살 필요가 없었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근우회 창립

- 1927년 4월
 - 여자 유학생 친목회 개최
 - 근우회 발기 총회(종로 중앙유치원, 4.26)



근우회 창립대회 광경

[출처1] 《중외일보》 1927년 5월 29일자 2면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근우회 창립

- 1927년 5월
 - 근우회 창립대회 개최(종로 기독교청년회관, 5.27)
 - “전국의 지식층 여성을 총망라하여 종교와 이념을 따지지 않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완전 합작한 여성운동단체”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근우회

- 최은희, 근우회 집행위원 겸 재무부장을 맡음
-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장해 여성 계몽운동을 펼친 근우회
 - 기관지 《근우》 발행
 - 광주학생운동과 연대
 - 1931년, 단체 해소

결혼과 퇴사



최은희의 결혼과 퇴사

- 1930년
 - 이석영과 결혼 (남편 사망, 1942)
- 1932년
 - 녹막염 투병 후 조선일보 퇴사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적극적 협력자가 된 여성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

- “어느 여자전문학교 여교장은 자기 학교 창설자의 동상과 주석으로 글자를 새긴 학교 간판을 떼어버린 일도 있다. 여학생들을 가두에 내세워 일본 군인의 호신용 무운장구의 복대를 만드는 천인침 작업에 참가시켰고, 그녀는 매일 정오 사이렌에 맞추워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라는 묵념도 가장 잘 준수하였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적극적 협력자가 된 여성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

- 그 당시 손가락질을 받아 가면서도, 놀림감이 되어가면서도, 길가다 사이렌이 울리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고개를 숙였고, 어느 회석이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혼자 발뺌 일어났다는 것이다. 친일파 대장인, 일본의 일등 공신이니 하는 별명도 들었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적극적 협력자가 된 여성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

- 물론 창씨도 남보다 먼저 하였고, 신사참배에 있어서도 대개의 여학교 책임자들이
그러했듯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나서서, 이것은 예수교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 국민으로서의 일종의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최은희의 비판적 인식

- 일제 말기 지식인들의 친일 협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
→ 해방 후 여성운동과 여성사 집필의 동기



여권실천자운동클럽과 서울보건부인회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해방 후 최은희의 여권운동 실천

- 1945년 9월 여권실천자운동클럽 조직
 - “여학교 교장은 여자로”
 - ‘여성 교장 선출 운동’ 주도
 - 여성 교장 배출에 기여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해방 후 최은희의 여권운동 실천

- 1946년 5월 서울보건부인회 창립
 - “국가의 번영은 국민의 보건에서”
 - “국민의 보건은 부인의 노력으로”
 - 서울시 보건국의 협조를 받아 보건 향상과 생활 개선 추진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해방 후 최은희의 여권운동 실천

- 1946년 5월 서울보건부인회 창립

“부인은 국가의 모체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있고 건전한 정신으로 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으니 신국가 건설 도상에 있는 우리 대한부인은 모름지기 단결하여 민족의 보건과 생활 향상에 노력하기를 선언한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서울보건부인회 활동에 대한 회고

- “서울보건부인회는 청소와 방역을 기본 운동으로 하여 깨끗한 서울, 명량한 서울을 이룩하자라는 것이 제1목표였고 항구적인 3대 사업도 계획하였다.
서울 장안은 쓰레기로 청계천을 메웠고 뒷골목마다 쌓인 쓰레기에서는 구더기와 파리떼가 들끓었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서울보건부인회 활동에 대한 회고

- 본회에서는 서대문형무소에 교섭하여 사흘(3일) 동안 수십명의 죄수를 동원시켜 복개되지 않은 청계천 상류에서부터 오간수 다리까지 장산을 이루어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쓰레기를 천변도로로 끌어 올려 시청 트럭을 동원해서 말끔히 치워버렸다.
(...)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서울보건부인회 활동에 대한 회고

- 10월 10일부터 열흘 간은 분회 위원인 여의사가 경영하는 열근데 병원을 개방하고 모자의 무료 건강 상담과 무료 진찰을 한 일이 있었다. 항구적인 사업으로는 우이동에 있는 적산 방갈로 마흔 다섯동을 본인의 이름으로 접수하여 결핵요양원을 설치할 준비를 했고, 수십만평 임야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각종 야채를 심어 가꾸고 젖소와 양계 양봉은 물론, 토끼와 오리도 길러 보려 하였고 경기 도지사 구자옥의 배려로 사료 배급도 받게끔 했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결핵방지 운동

- “결핵은 망국병, 침을 땅에 뱉지 말자”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학습정리

- 식민지 시기와 해방 직후 최은희의 여성운동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2차시 최은희의 여성운동



다음 차시에서는

-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SOURCES



[출처01] 《중외일보》 1927년 5월 29일자 2면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